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섹션을 운영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독특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제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축구에 스토리 붙여넣는 강릉 고교 라이벌전 합성

매년 단오제 때 중앙고-제일고 정기전

매년 9월, 서울 한복판에선 뜨거운 축제가 '연고전(고연전)'이 열린다. 오랜 기간 쌓여온 상대방에 대한 라이벌 의식과 경기의 추억은 두 학교를 넘어 한국 스포츠 역사가 되었다.

연고전 못지않게 뜨거운 경쟁을 자랑하는 정기전이 강원도에도 있다. 매년 강릉 단오제를 맞아 열리는 강릉 제일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의 축구 더비다. 강릉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강릉 단오제는 이제 강릉시를 넘어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강릉정기전의 역사는 70년이 넘는다. 1935년 강릉농업고(현재 강릉 중앙고)가 축구부를 만든 지 6년 후인 1941년 강릉상업고(현재 강릉 제일고)가 축구부를 창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친선 교류전의 성격이 짙었던 두 학교의 경기는 1961년 노안 공설 운동장 건설로 강릉에 축구 붐이 일면서 라이벌전 양상으로 변해갔다.

두 학교의 라이벌 의식은 상당했다. 특히 경기가 끝난 뒤 각 학교의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빈번히 투석전을 펼치며 경기장 밖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표출했다. 팬들의 이런 의식 때문에 강릉 정기전에 대한 강릉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다. 그러자 강릉시 축구 협회는 "경기를 정기적으로 펼치자"라며 제안했고 두 학교는 흔쾌히 승낙하여 1976년 강릉 단오제부터 정기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매해 강릉 정기전이 꾸준히 개최되어 온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강원 FC의 지원금이 강원 FC 유소년 클럽인 제일고에만 지원되자 이에 중앙고가 반발하면서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2015년 양교의 합의로 정기전 재개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강릉단오제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최근 열린 2017 강원정기전은 명성만금이나 '대박'이었다.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정기전은 5000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양팀 응원단들은 멋진 응원으로 경기장 내 분위기를 띄웠다.

뜨거운 응원전만큼이나 경기장에서도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더운 날씨였지만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지며 명승부를 펼쳐냈다. 양팀이 2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가 예상되던 후반 추가시간, 제일고등학교 김병철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리며 2017 강릉 정기전의 승자는 제일고가 되었다.

한국 K리그가 인기가 없는 원인 중의 하나로 스토리의 부재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강릉정기전은 스토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내년 강원 정기전에서 한국 축구의 스토리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김동현 대학생 명예기자

“라크로스 대중화되는 날까지, 스틱 잡아야죠”

청춘, 청춘을 만나다

9 라크로스 국가대표 김정윤

유럽선 활발하지만, 국내는 대학 5개 팀 뿐 7월 런던서 월드컵 개최…지원은 기대못해 “김연경 선수처럼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퀴디치 동아리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소설 해리포터에서만 보던 퀴디치를 실제로 하는 동아리가 있고, 전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퀴디치를 즐긴다는 소식은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퀴디치만큼은 아니지만 라크로스 역시 독특한 스포츠의 하나다. 라크로스는 ‘크로스’라 불리는 스틱으로 야구공만한 공을 던지고 받으며 상대 골대에 공을 넣는 스포츠이다. 경기장 크기는 축구장 크기와 비슷하고 한 팀에 골키퍼 포함 12명이 정원이다.

국내 스포츠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라크로스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스포츠로 유명하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많은 학교에서는 라크로스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5개 정도의 대학팀들만이 동아리 수준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화여대 팀 주장 김정윤 선수는 대학팀 내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하다. 대학교 때 처음 스틱을 잡았지만,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할 만큼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7월 런던에서 열리는 라크로스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윤 선수를 이화여대에서 만나봤다.

김정윤의 라크로스 입문은 우연히 시작됐다. 1학년 교양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자신이 체육 전공임을 안 한 학생의 권유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동보다 사람이 좋아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라크로스라는 스포츠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

대학리에서 꾸준히 활동하던 김정윤에게 국가대표의 기회가 찾아왔다. 연세대학교와의 경



라크로스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김정윤 선수(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 | 김정윤

기 직후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권유를 받았고, 최종 선발되어 7월 런던에서 열리는 라크로스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윤은 “국가대표로 활동하곤 있지만, 공식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운동은 재미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라크로스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정윤의 바람은 라크로스가 한국에 널리 알

려지는 것이다. 지금은 비인기 종목이고 입지가 좁아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예상하고, 우리나라 라크로스팀이 크게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롤모델은 배구선수 김연경이다. 김정윤은 “여자배구가 큰 인기를 끌지 못하던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 결국 세계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오른 것이 가장 멋있어요. 경제적 지원도 없고 국내 인지도도 낮지만, 열정과 꿈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해 멋진 결과를 가져오고 싶어요.”

김정윤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번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십에서는 3위에 그쳤지만, 7월 런던에서 열리는 라크로스 월드컵에서 더 많은 팀들과 만나 경쟁하고 실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포츠 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누군가는 가엾을 처음의 길,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김정윤의 모습에서 진정한 청춘의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

박재영 대학생 명예기자

“걸음마 단계 한국 카약, 스포츠 산업의 블루오션”

열려라! 스포츠 Job

송강카누학교 노현진 코치

2016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 관광과 연계한 국내 6곳을 선정해 지역경제 도움은 물론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선정된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 홍천군과 서울, 내린천 분교를 총괄하는 송강카누학교 노현진 코치에게 이색적인 직업 '카약 코치'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떻게 '카약(카약코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생 때 법학과 스포츠경영을 복수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

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여러 아웃도어 스포츠를 많이 접해왔어요. 좋아하는 활동이 결국 지금의 직업이 된 거죠. 카약에 빠지게 된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웃도어 활동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카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송강카누학교의 카약커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송강카누학교는 국내에 패들 스포츠 분야를 소개한 최초의 회사로, 교육이나 카약 투어 같은 서비스와 장비 수입 및 유통, 대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컨설팅과 지식산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카약커버들이 해주고 계시죠. 지금 서울, 홍천, 내린천에 한 분씩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약 코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나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국내에서 인정한 자격증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으로는 영국 카누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 어워드 레벨 코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료할 수 있는 스타 어워드와 코치에 특화된 레벨 코치가 있는데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저는 현재 4단계까지 취득했고, 5단계까지 취득하려면 보통 20~3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 송강카누학교에서도 스타어워드 레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 교육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들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으로 치자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패



노현진 씨

들링 스포츠 자체가 4대 아웃도어 스포츠 안에 들만큼 굉장히 큼니다. 점차 국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상스포츠가 각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가 기계화되고 도시화될수록 사람들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찾아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하는 일이나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직업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대학생 명예기자

여름엔 농구·겨울엔 스키…한상민의 ‘위대한 도전’

휠체어농구·알파인화식스키 메달리스트
내년 평창패럴림픽서 한국설상 첫 금 꿈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최고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최초’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은 강렬하다. 올림픽 첫 금메달, 월드컵 첫 승 같이 최초의 순간은 역사로 기억된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하는 이가 있다. 바로 한국

의 동계패럴림픽 첫 메달리스트 알파인스키의 한상민이다.

한상민은 선천적인 쇼아마비로 장애를 갖고 있지만 뼈 속까지 스포츠맨이다. 스키로 운동을 시작한 그는 알파인스키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처음 출전한 2002 솔트레이크패럴림픽 남자 대회전 LW12(장애등급)에서 2분52초3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에 동계패럴림픽 첫 메달을 안겼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이 따낸 설상종목 첫 메달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후 전국장애인체전을 휩쓸고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2006 토리노패럴림픽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주 종목에 집중하며 회전과 대회전에 참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의 올림픽을 경험하며 쌓인 경험은 그를 한층 성장하게 했다. 2010년, 오스트리아 압텐아우에서 열린 2010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알파인스키 월드컵 대회전 좌식스키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발휘했다.

잇단 올림픽 불운에도 스포츠를 향한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눈이 없는 여름엔 휠체어농구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급 실력을 발휘했다. 2014년에는 소치패럴림픽에 나서지 않

고 2014 인천APG(Asia Para Games) 휠체어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한상민의 꿈은 평창을 향해있다. 용평, 정선 등 강원도 인근에서 펼쳐지는 테스트 이벤트에 참여하며 코스를 익혀온 한상민은 지난해 용평에서 열린 2016 IPC 알파인스키아시아컵대회전 좌식스키부문을 은메달을 차지하며 평창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장애라는 어려움에도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은 한상민의 꿈이 평창 무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내년 겨울 평창에서 펼쳐지는 패럴림픽 무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윤 대학생 명예기자